

예수님은 모든 계명에 순종함을
보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.
침례를 받는 것은 계명이예요.



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한 후, 성신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왔어요. 그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어요. 그분께서는 “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”라고 하셨습니다.(마태복음 3:17)